

시장사람들이 만드는 명랑쾌활 스토리

악극 '명랑시장'
고창문화전당서

고창군이 전통시장을 배경으로 한 온정의 드라마와 효상에 대한 이야기이자 노래와 춤이 더해져 즐거운 공연 한마당을 선사 할 악극 '명랑시장'을 오는 21일 오후 7시 30분, 고창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2018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선정 작품인 악극 '명랑시장'은 모든 연령층이 함께 공감하고 웃을 수 있는 공연이다.

전통시장을 배경으로
드라마에 노래와 춤 더해
전 연령층으로부터 '호응'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향수와 공감대를, 아이들에게는 부모에 대한 효심, 각박한 세상에서의 이웃에 대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공연으로 사랑받고 있다.

흥과 정이 넘치는 따뜻한 온정이 느껴지는 드라마 악극 '명랑시장'은 동아연극상 작품상, 백상예술대상 신인연출상, 서울연극제 연출상 수상 등 관객들의 웃음코드 유발과 재치 있는 연출로 대중성과 작품성 모두 인정받고 있는 김성노 연출가와 동아연극상 작가상과 한국여성 연극인협



악극 '명랑시장'이 오는 21일 고창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명랑시장'의 한 장면.

의회 연출가상 등 연극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의 작가로 유명한 김정숙 작가가 극작하여 경기문화재단의 경기도립극단과 호흡을 맞춘 작품이다.
군 관계자는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고 흥이 넘치는 악극형태로 구성되어 탄탄한

연기력과 구성진 노래가라, 음악과 흥이 함께 어우러진 온정의 드라마를 만끽할 수 있고, 고단한 삶속에서도 따뜻하게 살아가는 시장사람들의 사랑과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공연에 많은 분들의 관람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공연 관람료는 일반 3000원, 학생 1500원이며 현장예매를 통해 가능하며 절찬리 예매 중이다.
공연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고창문화회관(063-560-8041~2)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처음처럼 새롭게 시작하자'

익산시립풍물단, 21일 창단 10주년 기념공연

익산시립풍물단(감독 김익주)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기념공연을 갖는다.

오는 21일 목요일 저녁 8시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제12회 정기공연 비상(飛上)은 Begin Again이라는 뜻을 담은 공연으로 처음처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익산시립풍물단의 여망(興望)을 담은 공연이다.

이번 공연은 대고(大鼓)를 중심으로 한 바람의 소리, 사물놀이와 남춤 보소 등 창단공연부터 지금까지 정기공연을 통해 관객에게 선보인 작품들과 익산시립풍물단을 대표하는 장구놀이로 새롭게 구성한 JangGu Story, 풍물 판굿의 비상(飛上) 등 밴드매너와 함께 다양한 작품을 CrossOver Concert로 제작해 선보인다.

익산시립풍물단은 2008년 10월 1일 창단하여 현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예술단에 비하면 적은 수치지만 매 회마다 단원들이 모든 혼을 다해 공연을 펼치기 때문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든 관객들이 탄성을 절로 자아내 풍물단 정기공연은 항상 전석을 채우는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2008년 창단 연주회 비상을 시작으로 그동안 익산시립풍물단은 여수EXPO 기획공연에 선정되었던 년별별 타악퍼포먼스 THE GOOD와 타악 Concert 달빛에 물들다 등 다양한 장르의 시도를 통해 전국에서도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익산시를 대표하는 예술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창단 10주년 공연을 통해 풍물단이 익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단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공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익산예술의전당(☎063-859-330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우병희 기자

▶▶ 신간도서 ◀◀

우지현 '흔하지가 좋은 방'

화가 우지현씨가 방과 관련한 아름다운 명화들을 선보인 책이다.

에드워드 호퍼의 '호텔방', 제임스 티소의 '요양' 같은 유명한 그림부터 파니 브레이크의 '기념일', 헤럴드 나이트의 '호텔방이 갔을 때', 지나 이다 세레브리야코바의 '화장대에서', 그웬 존의 '파리 예술가의 방 코너' 등 145점이 담겼다.

우지현씨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에서 자유롭게 머물렀으면 좋겠다"며 "때론 숨고 때론 쉬고 때론 울었던 방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 시간을 구체화하고 공간을 재해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400쪽, 1만8000원, 위즈덤하우스



김흔비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

김흔비씨가 썼다. 축구를 좋아하고 직접 축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여자들의 이야기다.

오랫동안 축구를 보던 김씨는 현재 축구를 하고 있다.
"어느새 축구팀의 일원이 되어 언니들의 눈치도 살피고, 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한다"며 "오랜 시간 온갖 주제로 잡다한 글들을 쓰다가 한 번 제일 좋아하는 것을 써 볼까 싶어 달려 축구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오고 말았다"고 전했다.

**280쪽, 1만4800원, 민음사



이순미 '싱가포르 유리벽 안에서 행복한 나라'

싱가포르는 물도 자원도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더위뿐인 적도의 섬나라이지만, 세련된 도시국가로 변모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작은 섬이지만, 세계 3대 정유 산업국이다. 1970년대부터 중동에서 수입한 원유를 석유로 만들어 다시 중동 시장에 되팔다. 적도 위의 마리톤을 개최해 끔찍한 더위조차 희귀한 상품으로 탈바꿈시켰다. 주재원 아내로 10여 년을 해외에서 산 이순미씨가 싱가포르의 지력을 분석했다.

**320쪽, 1만5000원, 책읽는고양이



구독·광고문의 288-9700

교보문고-대산문화재단, 2018 러시아문학기행

교보문고와 대산문화재단이 오는 8월 16~22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 일대를 탐방하는 '러시아 문학기행'을 연다.



'러시아 3대 문호' 푸시킨(1799~1837년), 도스토옙스키(1821~1881년), 톨스토이(1829~1910년) 등의 작품 무대와 삶의 흔적이 묻어있는 장소를 돌아보는 일정이다.

푸시킨이 시인 꿈을 키웠던 귀족학교 리체이와 마지막 결투 전 들른 문학카페와 푸시킨 동상이 자리한 예술광장, 도스토옙스키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집필한 도스토옙스키 문학기념박물관과 '죄와 벌' 배경지(라스콜니코프의 집·노파의 집·소녀의 집·센냐야 광장 등), 톨스토이가 48년 간 산 곳으로 그의 묘소가 있는 야스나야 폴랴나 등을 탐방한다.

박종소 서울대 노어노문학과 교수가 동행해 해설과 강연을 한다. 26일까지 교보문고 문화서비스 페이지와 대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는다. 모집 인원 25명, 참가비 330만원(교보문고 회원 기준)이다. /뉴스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